

## 이완규 처장, 늘봄학교 일일교사로 변신!

- 30일(목), 우암초등학교 늘봄학교 재능기부 참여

이완규 법제처장은 5월 30일(목), 청주시 우암초등학교를 방문하여 늘봄학교 일일교사로 현장 수업을 진행하였다. 우암초등학교는 1964년에 개교한 공립 초등학교로, 올해 1학기부터 1학년을 대상으로 늘봄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에 도입된 늘봄학교는 정규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하여 학생의 성장·발달을 지원하는 종합 프로그램으로, 기존의 초등학교 방과 후와 돌봄을 통합하여 제공하는 국가 교육 서비스다.

이완규 처장은 이날 일일교사로 변신하여 늘봄학교에 참여한 학생들과 함께 법과 관련된 OX 퀴즈를 풀고, 큰 공굴리기, 신발 양궁 등 체육 활동을 했다. 준비 체조를 마친 후 학생들은 각자 속한 팀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참여하였고, 처음 접하는 법 OX 퀴즈에서는 호기심을 가지고 고민해 가며 친구들과 대결을 펼쳤다.

이완규 처장은 “처음에는 어색하지 않을까 걱정했었는데, 학생들이 반갑게 맞아 주었고 함께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라면서, “늘봄학교가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되고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법제처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                |     |     |     |                |
|-------|----------------|-----|-----|-----|----------------|
| 담당 부서 | 법제정책국<br>법령정비과 | 책임자 | 과 장 | 이진희 | (044-200-6571) |
|       |                | 담당자 | 사무관 | 허남영 | (044-200-6583) |